

66세에 가수 도전...“노래하면 행복해요”

총매출 500억 대 교육기업 운영 인생 즐겁게 살고 싶어 노래 배워 ‘오늘 이별’ 등 음반 내고 가수로 지인들 초대해 ‘미니콘서트’ 열어

가수 채연(이채연·66), 유명 댄스 가수 와 동명이인이다. 열댓 나이만 보면 중년 가수인 듯 보이지만, 엄연히 신인 가수다. 그는 12일 오후 서울 청담동 수퍼콘서트에서 ‘채연과 친구들의 작은 음악회: 시작’(시작)을 열었다. 이날 ‘오늘 이별’, ‘나에게 너에게’ 등 2곡을 선보이며 무대에 올랐다. 신인 가수들이 통과의례처럼 거쳐 가는 ‘데뷔 쇼케이스’인 셈이다.

곡은 아직 네모난 녹색 검색어창이나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지만 조만간 노래방에서는 서비스될 예정이다.

사실 이채연은 입시전문학원 명인에듀를 창업한 전문 기업인이다. 그는 연세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서울의 한 고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2003년 서울 대치동에서 대치명인학원을 설립했다. 입시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서 의대 진학으로 명성을 떨쳤고, 지금은 경기도 분당, 동탄, 천안, 부산 등 전국에 32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연세대와 고려대에 장학금 등 기부를 하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5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교육 기업가’가 가수의 꿈을 키운 건 의외로 단순하다.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노래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평소 흥이 많은 그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주변의 도움으로 한 백화점 문화센터의 노래강사이자 데뷔곡 작사가인 유정에게 개인 레



가수 겸 대치명인학원 회장 이채연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수퍼콘서트에서 열린 ‘유어 라이프 브라보! 채연과 친구들의 작은 음악회’의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아래 사진은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이 그의 노래에 환호하는 모습. 주현희 기자 leth1147@donga.com

슨을 받기 시작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은데 뭔가 도전해서 해쳐 나가고 싶었어요. 두 아들을 모두 의사로 키운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보다 더 뿌듯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노래였어요. 가창력이 좋지 않지만 뭔가 힐링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해야 할까요? 실력이 평범해도 뭐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2곡이지만 CD로 만들어보자고 했죠.”

그의 도전은 앨범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날 ‘시작’은 제목만 작은 음악회이지, 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150명의 지인을 초대해 “다함께 즐겁게 살아보자”는 의미를 담은 콘서트다.

“2020년 11월 콘서트를 열려고 공연장까지 다녀왔다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연기했어요. 취소해도 되지만 다시 새 출발 하는 걸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하니 더 신나고 재미있더라고요. 사는 게 이런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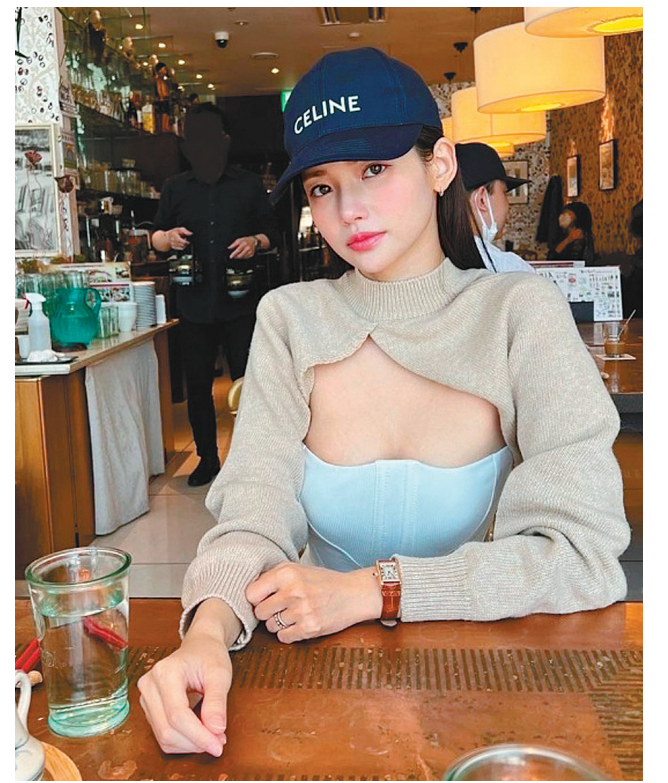
100분 공연 동안 단 1분도 한숨 팔 시간을 주지 않았다. 트로트 가수 신인선은 신나는 곡으로 관객을 휘어잡았고 난타 공연도 흥을 돋웠다. 유정은 콘서트의 진행까지 맡았다.

“제 곡과 선생님 곡,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히트 곡까지 다양하게 채웠어요. 공연 중 드레스를 세벌이나 갈아입느라 죽을 뻔했어요. 하하! 제 행사라고 저만 노래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초대가수 공연도 준비했구요. 전문 가수도 아닌데 실수 좀 하면 어때요? 그냥 재미있게 봐주면 감사한거죠. 앨범도, 콘서트도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그냥 재미있게 사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One pick

업 앤 다운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배우 하연수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미술 관련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하연수 인스타그램 캡처

은퇴설·AV설 등 도 넘은 악플 배우 하연수 “진짜 고소하겠다”

난데없이 은퇴설에 휘말린 배우 하연수가 결국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연수는 올해 초 소속사 앤드마크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새삼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에서는 그가 포털사이트 내 프로필을 삭제해 연예계 활동을 접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잇따랐다. 계약 만료 이후 새 소속사를 구하지 않고 일본으로 미술 관련 유학을 떠난 점도 은퇴설에 힘을 실었다.

각종 추측에도 하연수는 최근까지 SNS 계정에 밝은 표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는 등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인들과 댓글로 안부를 나누기도 했다. 다만 활동 여부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다 도를 넘은 악성 댓글까지 나오자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2일 하연수는 SNS를 통해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AV(성인 비디오물)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삭제한 흔적을 캡처해 올리며 “진짜 고소하겠다”고 분노했다. 이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말이 나오느냐. 예전 PDF 파일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가 없어서 본인 아니면 고소해줄 편 없다”는 댓글에 “개인적으로 어떤 행보든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하연수는 2013년 ‘몬스타’, 2016년 ‘혼술남녀’, 2018년 ‘리치맨’ 등 드라마를 주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다양한 작품에서 귀여운 매력을 드러내 인기를 모았다. 지난해 개인전 ‘하연수:기억의 형상’을 여는 등 미술작가 활동도 펼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한국의 ‘연기돌’, 주연으로 모십니다”

진권 이민욱 김우진 배진영 등 K팝 힘입어 해외 러브콜 러시

‘연기돌’(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연기의 무대를 넓히고 있다. 케이(K)팝의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해외 제작진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는 덕분이다. 이들은 케이팝 소재가 해외 드라마의 인기 소재로 떠오르면서 영역 확장에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뉴키드 진권, 티버드 출신 이민욱, 스트

레이 키즈 출신 김우진, 재로 유재찬 등은 미국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HBO 맥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웃장 너머로’의 주연으로 캐스팅돼 촬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극중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ACT 멤버를 맡는다.

드라마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10대 소녀가 웃장에서 포털(순간이동 입구)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서울로 와 ACT 멤버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HBO 맥스 콘텐츠에 한국 배우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국내외에서 일찌감치 기대를



진권

김우진

모이고 있다.

CIX의 멤버 배진영은 주연한 태국 공포 영화 ‘더 앤터크 샵’을 6월 2일 현지 개봉한다. 골동품 가게에 있는 물건들의 유래를 다룬 세 편의 이야기를 유니버스 형식으로 다룬 영화에서 마지막 에피소드인

‘원한 품은 칼’ 편 주연을 맡았다. 태국으로 유학을 와 집단따돌림을 당한 후 복수에 나선다는 한국인 소년 역이다.

태국 매체 타이거는 “한국 출신의 케이팝 아티스트 배진영이 첫 번째 영화를 내놓는다”며 그의 캐스팅 소식을 집중 보도했다.

현지 제작진은 케이팝 그룹으로서 쌓은 이들의 인지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 아이돌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아직 부족한 연기력을 터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웃장 너머로’의 경우, 케이팝 소재를 다루는 만큼 다양한 아이돌 멤버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오디션을 펼쳐 3개월에 걸쳐 주역들을 발탁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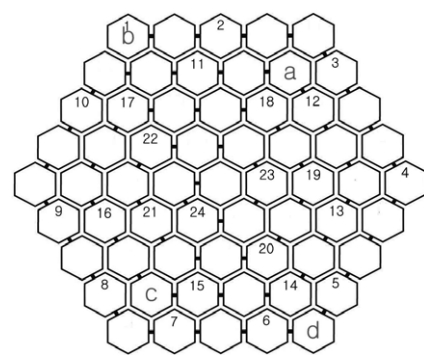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8	2	1		4	
9		7				3		
	1			7			8	
4				8				2
1		2	4		7	8		3
7				6				4
	2			4			5	
		5				2		9
7		2	3	5				

■ 스도쿠정답

		1		6		2	5	
3	6			9			8	
5			1		4			3
		5				9		
8	1						4	6
		6				5		
6			2		9			5
	2			1			3	7
5	8		4		6			

■ 낱말문제



01. 낱말의 앞. 02. 전쟁에 쫓겨난 말과 소를 놓아 보낸다는 뜻, ‘귀○방○’. 03. 나뭇잎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04.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05. 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06. 조직·단체·기관의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07. 본업 이외의 일

을 하여 얻는 수입. 08.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 09. 자기 눈에 물을 끌어 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함. 10. 길거리에 상수도의 수통이 박혀 있는 곳. “○통박○” 11. 두 사람이 서로 맞닿은 쪽의 발목을 묶어 세 발처럼 하여 함께 뛰는 경기. 12.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 13. 평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14. 먼저 와 닿는 차례. 15.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 16. 열정으로 피가 끓는 사나이. 17. 남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굴. 18. 잉어와 닭을 함께 넣어 끓인 국. 19. 고기 튀김에 녹말을 달콤하게 끓여 부은 중화요리. 20.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 21. 가계에 내다 팔려고 낱말로 만든 물건. 22.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고르게 주는 일. 23. 사람의 크기와 같게 만든 불상. 24. 호된 꾸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벼○’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품 다음 a~d 칸을 이어놓으면 식물의 이름이 됩니다.

